사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와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 여러분!

이브레아에서 선교사 지원소가 시작한지 50년 후 인도의 **구와하티** 관구 **시라줄리**에서 2011년 11월 22일 실론의 살레시오 주교였던 **후베르토 디' 로사리오**를 기억하며, 새로운 선교사 지원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첫 그룹으로 54명의 지원자와 수련자가 만민을 위한 선교에 생명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양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1922년 복자 **필립보 리날디** 신부님의 선견지명으로 시작되어 50년 동안 지속되던 살레시오 선교 전통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 즉시 이탈리아의 다른 곳에서 여러 선교사 지원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이브레아, 베냐뇨, 폴리조 가예타, 바뇰로 꾸미아나 토리노 - 레바우덴고, 꼴레 돈보스코**) 그리고 스페인의 **아스투딜리오** 영국의 **슬리글레이** 프랑스의 **코트 앙 도크**에서 문을 엽니다. 선교사 지원소는 그 당시로는 상당히 독창적이면서도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3-4년 동안 선교의 구체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실질적이면서 강도 높은 양성을 시켰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수사님을 위한 집이 3곳 신학생을 위한 집이 5곳 있었다). 15-18세의 나이에 선교지로 떠나곤 했습니다. **이브레아**의 '갈리에로 추기경' 지원소에서만 지원소가 건재했던 1922-1965년 사이에 약 1,000명의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견했었습니다. 교회의 다른 상황들처럼, 모든 선교사 지원소는 60년대 말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 아시아지역에서 선교 성소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브레아의 원장 **엘리지오 카프리올리오**는 지역 담당 평의원과 함께 살레시오 선교 문화의 뿌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라줄리**에 지원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소를 시작한 **구와하티** 관구장의 용기와 선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대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남부 인도에서 두 번째의 지원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라줄리의 양성자들과 젊은 지원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로 동반해 주기를 빕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향 후 3년, 지원소의 윤곽이 더 잘 들어나고, 생명을 바치는 살레시오 선교로 향하는 젊은 지원자들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동반해 주기를 빕니다. 이 모든 것을 도움이신 마리아의 보호와 인도에 맡겨드립니다.

Václav Klement

선교담당 평의원
바츠라브 클레멘트 신부 SDB

5 일본으로 떠난 명의 선교 지원자

아마 우리 수도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몇 년 사이에 베트남의 젊은 지원자 다섯 명이 선교사로써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드레아 트란 민 하이, 요한 래 팜 니기아푸, 요셉 은구엔 자오 호아, 요셉 은구엔 카오 디엘, 요셉 은구엔 두이 훈입니다. 이 다섯 명의 젊은이는 수련을 마쳤고 이제 수련직후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조후의 양성 공동체에 새로움과 신선함의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아직 토리노에서 선교사 십자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성장한 사회이기에 복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하는 녹녹치 않은 십자가를 이미 지고 있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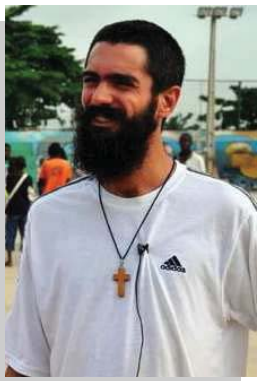
"갈리에로 11"
편집실

선교지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앙골라**의 **우루과이** 선교사들이 우리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내가 15살이 되었을 때 살레시오 선교사 한 분이 나에게 젊은 살레시오 선교사 단체에 들어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몬테비데오**의 가난한 마을에서 선교 체험을 했습니다. 18세에 나는 지원소에 들어갔습니다. 24살에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나의 조국과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식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 내적 원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 영적 지도자와 신학교 원장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민을 위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우루과이**에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나 원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누기를 바라시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가난을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부름 받은 성소에 충실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를 위한 교육'은 나에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만민을 위한 선교를 내가 훨씬 더 잘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호수가에 가서 이 물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조급하게 하기도 하고 화가 나게 하기도 합니다.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마음을 한번 주면 영원히 주는 것이고 모두 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변명'이라는 의미를 지닌 "**릭세리아**"라고 불리는 **루안다시**의 극도로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곳이 참으로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삶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나는 우리 오라또리오의 활성자로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슬픈 얼굴을 한 채 화가 나서 왔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백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가족들의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만납시다.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이 학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집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둘이건 열이건... 손님을 맞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울타리를 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상을 끼고 살기도 합니다. 안아주고 웃어주는 것, 빵 그리고 지붕 이런 것들은 아무에게도 거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당신이 우리 집에서 자고 먹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들인 가난한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학교에서 사는 것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 아니 작은 사람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 "변명"이라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까지 끝없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산티아고 보익스 뿌이지 신부
앙골아의 우루과이 출신 선교사

살레시오 선교 지향

브라질 - 선교자원봉사자

브라질의 모든 관구들의 선교자원봉사 사목이 성장하도록

"2011 살레시오 선교의 날"을 위한 자료나 비디오에서 브라질의 몇 관구의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사목의 성장은 교육 사목적인 제안의 질적 성장과 함께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성소 동반의 질적 성장도 필요하고, 살레시오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모든 연령층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참여시켜, 어린이 선교 경험으로부터 청년들의 선교자원봉사를 체험하게 합시다. 성탄과 부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체험에 여러 단체들을 초대합시다. 그리하여 이런 활동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삶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돌봅시다.